

原電 PA를 위한 國際協力

今年가을 「原子力 PA에 관한 國際심포지움」 開催

日本政府는 最近에 開催된 經濟協力開發機構 / 原子力機關(OECD / NEA)의 專門家會合에서 原子力開發에 있어 國民的 理解(Public Acceptance)를 폭 넓게 얻기 위하여서는 더욱 國際協력이 增進되어야 한다고 提案하였으며, 日本과 상이한 사회환경과 에너지政策을 갖고 있는 다른 國家들도 이 日本의 제안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日本政府는 금년 가을에 「原子力の 國民的 理解에 관한 國際심포지움」을 日本 東京에서 開催할 예정인데, 이 심포지움에서는 原子力開發을 촉진시키기 위한 方法論이 논의될 것이다.

日本에서의 PA活動은 주로 原子力發電所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다. 地域住民의 복지향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日本政府의 政策은 電源3法을 기초로 하고 있다. 原子力發電所가 위치하고 있는 地域社會에 새로운 체육관, 공회당 및 기타 공공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며, 電力會社는 原子力發電所 인근의 모든 地域住民들에게 展示館을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原子力發電에 대한 활발한 反對運動으로 대부분의 數地豫定地域에서 新規原電을 建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日本은 原子力發電에 대한 國民的 理解에 있어서 다른 原電 開發國 보다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日本이 제의한 原子力에 대한 國民的 理解를 위한 國際協力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그 解答은 최근 日本에서 展開되고 있는 原子力發電에 대한 反對움직임에서 찾을 수 있다.

Ikata 原子力發電所의 負荷追從運轉試驗 反對가 새로운 反核움직임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이 反對運動은 4月24日 東京에서 열린 집회에 약 6,000명이 참가하여 확인되었으며, 더우기 이 집회에는 原子力에 대해서 무관심한 주부와 젊은이들이 많이 참가하여 일종의 붐(Boom)을 보였다. 이 反對움직임은 「위험한 이야기-체르노빌과 日本의 運命」의 저자인 Takashi Hirose氏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이 책과 일반 대중주간지 등에 그가 기고한 선동적인 글이 原子力發電에 대한 反對感情을 자극하였다.

日本에서는 체르노빌事故 以後 原子力の PA에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체르노빌事故가 發生하자 政府, 原子力安全委員會, 電力會社들이 즉각 대응조치를 취하였으며, 또한 事故가 일어난 곳과는 地理的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國民들은 냉정하게 이 사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후 유럽國家에서 輸入되는 食料品이 오염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자, 이를 직접 다루는 주부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原子力の 危害問題가 제기되었다.

事故, 放射線, 암, 죽음 등이 「위험한 이야기」에서 주로 사용된 단어들이다. 이 책은 어린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原子力發電이 존속하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 이 허황된 이야기가 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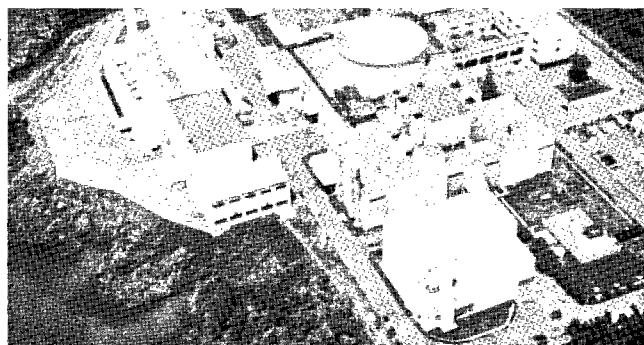
子力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怪奇小説과 같은 쇼크를 주었음이 신문의 독자란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食料品 오염문제로 狀況이 바뀌지 않았다면 大衆의 관심을 끌지 못했을 이 책은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어 200,000부 이상이 팔렸다. 신문에서는 이것을 「Hirose Takashi 신드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뚜렷한 政治的目的 없이 原子力 反對에 가담하는 사람들과 都市地域의 주부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단순히 「두려움」만을 느껴 반대하는 새로운 반대집단과 「科學的」 근거로 반대하는 기존의 반대집단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狀況이 이와 같은 국면으로 전개되자, 日本政府와 原子力發電 開發에 참여하는 産業界는 사태가 예측했던 것 보다 중대함을 인식하고 수습에 나섰다. 즉, 모든 情報傳達媒體를 이용하여 原子力問題에 대한 國民弘報에 주력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대상범위를 原子力發電所 인 근지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더 넓혀 33個 대중 잡지와 지방신문에 原子力發電의 必要性和 安全性에 관한 全面 廣告를 게재하고 있다.

情報은 때때로 날조되거나 조작되는데, 原子力 反對者들은 사소한 고장을 마치 위험한 事故인 것처럼 과장하여 反對運動의 목표로 정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꾸민 정보를 퍼뜨리는 경향이 있다. 현재 이 일련의 反核움직임의 직접적인 동기는 과장되게 날조된 정보가 商業的인 配布網을 통해 퍼져나가 신드롬쇼크를 유발시킨 것이다.

그러나 政府와 電力會社가 제공하는 原子力 情報에서는 이러한 조작활동을 할 수 없다. 政府와 電力會社는 아무리 경미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그 고장이 무엇이 됐던 사실대로 國民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매우 힘든 일로서 國民들이 아무런 오해없이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만 한다.

지난 겨울에 있는 原子力發電의 옴고 그림에



관한 첫번째 논쟁이 原子力 反對者들의 일방적인 급습으로 끝난 이후 금년 봄에 시작된 두번째 논쟁에서는 원자력 지지자들의 반격작전이 개시되어 현재는 原子力發電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原子力 반대자들의 근거가 약화되고 있다.

현재 日本 國民들은 전례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어서 가치판단과 사고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原子力 論爭은 시대조류의 副産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一般國民들은 앞으로의 에너지展望에 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점이 原子力 반대자들에게 있어서는 天惠의 要塞이다. 에너지生産方法이 이미 광범하게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잘못이다.

原子力開發에 대한 國民的 理解를 위한 國際協力の 增進은 여러나라가 國民的 理解를 획득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共同으로 노력함으로써 체르노빌事故 以後 이分野에서의 活動經驗을 向上시키기 위한 것이다. 금년 가을에 열릴 이번의 國際심포지움은 日本 國民들에게 國際社會에서의 原子力 役割에 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原子力에 대한 國民的 理解 增進을 위한 이 日本의 제안으로 世界各國의 國民들이 原子力開發의 重要性和 必要性을 再認識하게 되기를 바란다.

체르노빌原電事故는 全世界의 原子力開發 推進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原子力技術에 의혹을 남겨주었다. 이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國際的인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